

誠과 人間의 價値創造

高南植*

目次

- | | |
|--------------|------------------|
| I. 緒言 | III. 人間의 誠과 福祿壽命 |
| II. 天地之誠과 人間 | IV. 結語 |

I. 緒言

성(誠)은 그 정의를 논리적으로 명확히 단정할 수 없는 개념이다. 잘 알려진 성(誠)과 관련된 내용은 <<중용>>에서 「성 자체는 하늘의 도요 그러한 성을 따라 정성스러울려고 노력하는 것은 인간의 도이다(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라고 한 부분이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정성 그 자체는 하늘의 도>라고 한 부분에서 천도(天道)를 규정하는데 다양한 내용이 있듯이 정성을 단적으로 의미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이와같은 난점하에서 본고는 대순사상에 나타나는 성(誠)을 단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전경>>에 드러난 성과 관련된 구절속에서 그 뜻을 살펴본 것이다.

그와함께 <<대순진리회 요람>>에서 <<성(誠): 도(道)가 곧 나요, 내가 곧 도(道)라는 경지에서 심령(心靈)을 통일(統一)하여 만화도제(萬化度濟)에 이바지 할지니 마음은 일신(一身)을 주관(主管)하며 전체를 통솔 이용하나니, 그러므로 일신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게하는 것은 오직

* 대전대학교 대순종학과 교수

마음에 있는 바를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이니 정성(精誠)이란 늘 꿍임이 없이 조밀(稠密)하고 틈과 험이 없이 오직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른다 >>(요람 16쪽) 라고 하여, 정성을 <정성(精誠)이란 늘 꿍임이 없이 조밀(稠密)하고 틈과 험이 없이 오직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라고 정의한 부분에 입각 인간에게 있어서 성(誠)의 의의와 가치를 찾아 보았다.

이를위해 성과 연관된 주요 구절로서 본고는 <천지 성경신(天地 誠敬信)>(교운 1장 66절, 현무경 20면)과 <복록수명 성경신(福祿壽命 誠敬信)>(교운 1장 30절)의 의미를 중심으로 <<중용>>의 성(誠) 관련 구절을 종합해 성의 의미를 찾아 보았다.

이에따라 이글은 <천지 성경신(天地 誠敬信)>은 <<중용>>에서 성(誠)에 대해 정의한 <성자 천지도야(誠者 天之道也)> 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복록 성경신>은 복록수명이라는 낱말에 주목해 성(誠)의 의미를 인간 도통(道通)의 내용들속에서 살펴보았음을 밝혀둔다.

II. 天地之誠과 人間

본장에서는 천지인(天地人) 삼계(三界)에서 성(誠)의 가치를 살펴보기로 한다.

<천지 성경신(天地 誠敬信)>은 천지가 성경신의 원리하에 운행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천지 성경신(天地 誠敬信)에서 성(誠)의 의미는 <<중용(中庸)>>에서 <<성은 하늘의 도이다(誠者 天之道也)>>라고 한 것 보다 확장된 지계(地界)까지를 포함한 우주적인 개념이며, 나아가 성(誠)만이 아니라 경(敬)과 신(信)의 차원까지 내포한 절대적인 우주의 운행을 지칭하고 있다.

이것은 대순사상에서 강조되고 있는 천지인(天地人) 삼계(三界)라는 우주관과 관련된 것이고, 인간을 둘러싼 천지가 성경신(誠敬信)으로 움직인다는 좀더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천지 성경신(天地 誠敬信)>에서 경과 신에 대해서 보면, 경(敬)은 사강령에서 경천(敬天)이라는 의미로 나타나 상제에 대한 공경으로부터 경(敬)사상

이 시작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신(信)에 있어서는 <<너희들이 믿음을 나에게 주어야 나의 믿음을 받으리라>>(교법 1장 5절) 고 하여 인간의 상제에 대한 선행적(先行的) 믿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나를 믿고 마음을 정직히 하는 자는 하늘도 두려워 하느니라>>(교법 2장 7절) 는 내용에서는 하늘을 포함 삼계대권을 주재하는 상제에 대한 믿음의 절대성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흑한 추위속에서도 하늘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呼寒信天 唯不死)는 비유로도 드러나고 있다.

한편 <천지 성경신(天地 誠敬信)>에서 <<천지에 신명이 가득차 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 바른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지나니라.>>(교법 3장 2절) 는 내용을 생각할 때 천지와 신(神)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구절에서 <<천지는 망량이 주장하고 일월은 조왕이 주장하며 성신은 칠성이 주장이 된다(天地 魍魎主張 日月 寵王主張 星辰 七星主張)>>(교운 1장 44절) 라고 한 부분은 신(神)의 작용으로 천지가 주장 운행되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천지 성경신에서 천지를 신(神)이 성경신(誠敬信)으로 운행시키는 것으로 바꾸어 말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천지 성경신(天地 誠敬信)>은 신(神)이 성경신으로 천지를 움직이고 각종의 천지의 일을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여기에서 천과 지, 신과 인의 바람직한 관계는 <<음양경(陰陽經)>>에서 찾을 수 있다. <<전경>>에 나오는 <<음양경(陰陽經)>>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천이 정해지고 곤이 따른다. 천은 양이고, 곤은 음이다. 신이 있고 인간이 있다. 신은 음이고 인간은 양이다. 천지의 일은 모두 음양 중에 성공이 있다. 만물의 이치도 모두 이 음양중에 이루어진다. 천지는 음양으로써 변화하고 신과 인은 음양으로써 조화를 이룬다. 하늘은 땅의 감화가 없으면 그 뜻을 아래에 펼 수 없고 땅은 하늘의 공이 없으면 땅위에 펼칠 수 없다. 천지가 화합해야 만물을 창성하고 천지가 안정돼야 만상이 구비된다. 신은 사람이 없으면 후에 의탁할 곳이 없고, 사람은 신이 없으면 앞에서 이끌어 줄 대상이 없다. 신과 사람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신과 사람이 합쳐져야 모든 일이 만들어진다. 신명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은 신명을 세운다. 음양이 서로 합쳐지고 신과 사람이 서로 통한후에 하늘의 도가 이루어지고 땅의 도가 이루어진다. 신의 일이 이루어지고 사람의 일을 이루어진다. 사람의 일이 이루어지고 신의 일이 이루어진다. 신명 신명 천지의 모든 신명들이 아래로 살펴 수찰하신다. (乾定坤順 乾陽坤陰 有神有人 神陰人陽 天地之事 皆是陰陽中有成 萬物之理 皆是陰陽中有遂 天地 以陰陽成變化 神人 以陰陽成造化 天無地化 無布於其下 地無天功 無成於其上 天地和 而萬物暢 天地安 而萬象具 神無人 後無託而所依 人無神 前無導而所依 神人和而萬事成 神人合而百工成 神明嫉人 人嫉神明 陰陽相合 神人相通然後 天道成 而地道成 神事成 而人事成 人事性 而神事成 神明神明 天地諸神明 下鑑垂察)(교운 2장 42절, <<음양경(陰陽經)>>)

위에서 귀신이 인간을 수찰한다는 내용은, 천지 성경신아래에서 인간적 차원에서 궁구해야될 점을 결국 신의 인간에 대한 관계에서 찾아야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신의 속성은 종도의 방심을 경계한 부분에서도 신명이 먹줄에 따르듯 법리에 철저함을 찾을 수 있다.

상제께서 또 어느날 약방 대청에 앉고 류찬명을 마루 아래 앉히고 순창 五仙圍碁, 무안 胡僧禮佛, 태인 群臣奉詔, 청주 萬東廟라 쓰고 불사르셨도다. 이때에 찬명이 좀 방심하였더니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神明이 먹줄을 잡고 있는데 네가 어찌 방심하느냐.” 하셨도다. (예시 67절)

공사를 행하실 때나 또 어느 곳에 자리를 정하시고 머무르실 때에는 반드시 종도들에게 정심을 명하시고 하고 방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보신 듯이 마음을 거두라고 명하셨도다.(교법 3장 8절)

상제의 귀신(鬼神)에 대한 평가는 <<상제께서 “귀신은 진리에 지극하니 귀신과 함께 천지공사를 판단하노라”>>(교운 1장 19절) 라고 한 부분에서의 귀신이 진리에 지극하다는 내용과 통하는 것이다. 이점은 천지공사라는 새로운 우주적 질서하의 유토피아 건설은 진법으로 구현되는 진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 공사가 귀신에 의한다는 것은 신의 진리에 지극한 정성을 엿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각종의 천지공사와 신의 연관성속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신은 인간이 정한 약속에 따라 일을 이루게 한다. 아래의 떡을 찌는 아낙의

예에서 인간의 처음의 정성(精誠)이 풀어져 정해진 약속을 어기게 되자 떡이 익지않게된다. 한편 그 아낙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노력하게 되자 아낙의 정성이 신(神)에게 전해져 인사(人事)의 일이 다시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상제의 신성하심이 하운동(夏雲洞)에도 알려졌도다. 이 곳에 이선경(李善慶)이란 자의 빙모가 살고 있었도다. 상제께서 주인을 찾고 <그대의 아내가 사십구(四十九)일동안 정성을 드릴 수 있는냐를 잘 상의하라> 분부하시니라. 주인은 명을 받은 대로 아내와 상의하니 아내도 일찍부터 상제의 신성하심을 들은 바가 있어 굳게 결심하고 허락하니라. 상제께서 다시 주인에게 어김없는 다짐을 받게 하신 뒤에 공사를 보셨도다. 그 여인은 날마다 머리를 빗고 목욕재계한 뒤에 떡 한 시루씩 찌서 공사 일에 준비하니라. 이렇게 여러날을 거듭하니 아내가 심히 괴로와하여 불평을 품었도다. 이날 한 짐 나무를 다 때어도 떡이 익지 않아 아내가 매우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노라니 상제께서 주인을 불러 <그대 아내는 성심이 풀려서 떡이 익지 않아 매우 걱정하고 있으니 내 앞에 와서 사과하게 하라. 나는 용서하고자 하나 신명들이 듣지 아니하는도다>고 이르시니라. 주인이 아내에게 이 분부를 전하니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사랑방에 나와 상제께 사과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시루를 열어보니 떡이 잘 익어 있었도다. 부인은 이로부터 한결같이 정성을 드려 사십구(四十九)일을 마치니 상제께서 친히 부엌에 들어가셔서 그 정성을 치하시므로 부인은 정성의 부족을 송구히 여기니 상제께서 부인을 위로하고 그대의 성심이 신명에게 사무쳤으니 오색 채운이 달을 끼고있는 그 증거를 보라고 하셨도다.(행록 1장 29절)

윗글은 일관성과 정성의 관계로 볼 수 있다. 두 번의 다짐을 한 아낙이 불평 불만 없이 일관된 노력을 기울인 것과 다시 자신을 반성하고 일관성을 보인 것이 정성이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신(神)의 속성은 인간의 윤리도덕(倫理道德)을 판단해 <<대대세세 천지귀신수찰(大大細細 天地鬼神 垂察)>> << 지금은 신명 시대니 삼가 힘써 닦고 죄를 짓지 말라.>>(교법 3장 5절)라는 말처럼 인간의 죄를 늘 신명이 주목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신명은 탐내어 부당한 자리에 앉거나 일들을 편벽되게 처사하는 자들의 덜미를 쳐서 물리치나니라. 자리를 탐내지 말며 편벽된 처사를 삼가하고 덕을 닦기를 힘쓰고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라. 신명들이 자리를 정하여

서로 받들어 앉히리라.(교법 1장 29절)

상제께서 교훈하시기를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 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에 마음을 바로하라. 사곡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 이제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에 먹줄을 겨누게 하고 사정의 감정을 번갯불에 붙이리라.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자는 지기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통겨지리라. 운수야 좋건만 목을 넘어가기가 어려우리라.”(교법 3장 24절)

신의 인간에 대한 판단에서 정성이란 인간의 탐욕(貪慾), 편벽(偏僻), 사곡(私曲)함의 죄(罪)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모든 도덕은 성실이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개인의 윤리, 사회의 윤리, 정치의 윤리도 성실이 없이는 수행되지 않는다. 성실은 단순히 인간의 의지적인 행위이상의 하늘의 길이요 하늘의 율법이다. 인간의 도덕은 하늘의 율법에 뿌리하고 있다.(金吉換,1994:69)

또한 <<중용>>에서 <<< 절대적 진실은 불멸이다. 광대하고 심원하기 때문에 초월적이고 이성적이다. 광대하고 심원함은 마치 땅과 같다. 그것이 초월적이고 이성적임은 마치 하늘과 같다. 무한한 영원, 그것은 곧 신(神) 그 자체이다.>>(중용>> 25장) 라고 한 구절에서 신적 차원의 인간 성에대한 가치판단의 연결고리를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신의 인간에 대한 특징의 경계와 상벌은 << 새 기운이 돌아 닥칠 때에 신명들이 불갈을 들고 죄 지은 것을 밝히려 할 때에 죄 지은 자는 정신을 잃으리라.>>(교법 3장 5절) 는 내용에서 처럼 신명시대(神明時代)의 시작과 함께 열려지는 적극적이고 활발한 윤리적 가치판단(價値判斷)의 새 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천지지성(天地之誠)과 인간지성(人間之誠)의을 밝힌 율곡의 성에 대한 내용과 의미가 통하고 있다.

율곡은 인간의 지상의 가치를 성에 둬으로써 성을 인간존재의 근본원리로 볼 뿐만아니라 , 이를 우주 만물의 일체존재의 궁극적 원리로 확대하게 되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천지의 성으로써 다시 인간의 성을 교설하게 된 것

이다.(都珖淳, 1981: 75)

이러한 천과 인 나아가 신의 관계를 성(誠)을 중심으로 타 유교관련 경전인 <<중용(中庸)>>에서 보기로 한다.

천(天)과 인(人)사이에는 성(誠)을 중심으로 하는 성인과 인간의 도가 존재함을 밝히고, 정성 그 자체인 것이 하늘이고 그것을 따라 정성스러울려고 노력하는 것을 인간이 가져야될 도(道)로 적고 있다.

정성이란 하늘의 도이다. 정성스러울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이다.(誠者 天之道也 誠之者 人之道也)(<<중용>>)

위의 내용을 <<중용>>에서 찾아 본 것은 <<전경(典經)>>의 <<천지 성경신(天地 誠敬信)>>이라는 구절과 <성자 천지도야(誠者 天之道也)>의 내용이 서로 통하는 면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도(中道)에 맞는 정성 그 자체를 성인(聖人)으로 보고 정성스러울려고 하는 것은 선(善)을 택해 굳게 지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인간에게 있어 필요한 노력은 널리 배우고 깊이 살펴서 묻고 신중히 생각하며 명철히 판단해서 독실히 행하는 일이 필요함을 중용은 보이고 있다.

정성이란 힘쓰지 않아도 적중하며 생각하지 않아도 얻게 돼 조용히 도에 적중하는 것이 성인과 같다. 정성스러울려고 하는 것은 선(善)을 택해 굳게 지키는 자이다. 넓게 배우고 살펴 묻고 신중히 생각하며 명철히 판단해 독실히 행하는 것이다. (誠者 不勉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 聖人也 誠之者 擇善而固執之者也 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辨之 篤行之)(<<중용(中庸)>>)

위에서 성지자(誠之者)에 대해서 <정성스러운 사람은 선을 택해서 고집하는 자이다.(誠之者 擇善而固執之者也)>라고 한 부분이 <<전경>>에 <서전서문(書傳 序文)을 많이 읽으면 도에 통한다>고 한 내용과 일련의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찾을 수 있다. 서전의 서문은 요순우탕(堯舜禹湯)그리고 문왕무왕 주공(文王 武王 周公)의 심법(心法) 전수의 내용을 따라 인간이 정성으로 일관한 수행을 통해 완성의 경지인 도통(道通)에 이른다는 것이다.

<<서전(書傳)>> 서문(序文)의 내용은 마음의 근원이 도에 따라야되며 그

마음의 법으로 <정일집중(精一執中)>과 <건중건극(建中建極)>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삼황(二帝三皇)의 정치(政治)는 「도(道)」에 근본하고 「이제삼황(二帝三皇)의 도」는 「마음」에 근본을 두었으니 그 「마음」만 깨달으면, 그 「도(道)」와 「정치(政治)」에 대해서 말할 수 있으리라. 왜 그런가 하면, 「정일집중(精一執中)」은 요순우(堯·舜·禹)가 주고 받은 「심법(心法)」이요, 「건중건극(建中建極)」은 상탕(商湯)·주무(周武)가 서로 전한 「심법(心法)」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덕(德)」이니, 「인(仁)」이니, 「경(敬)」이니, 「성(誠)」이니 하는 것은 말은 비록 다르지만 실상 그 이치는 하나이니, 그것은 모두 이 마음의 묘한 바탕을 밝히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천(天)을 말함에 있어서는 그 마음의 유래한 바를 엄숙하게 함이요, 민(民)을 말함에 있어서는 그 마음을 배푸는 대상에 대해서 삼가게 함이니(二帝三王之治 本於道 二帝三王之道本於心 得其心 則道與治 固可得而言矣 何者 精一執中 堯舜禹相授之心法也. 建中建極 商湯周武相傳之心法也 曰德 曰仁 曰敬 曰誠 言雖 殊而理則一 無非所以明此心之妙也. 至於言天則嚴其心之所自出 言民則謹其心之所由施)

서전 서문(書傳 序文)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요순우탕(堯舜禹湯)과 문왕(文王) 무왕(武王)의 심법(心法) 전수의 요점이 정일집중(精一執中)과 건중건극(建中建極)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 부분에 대한 주자(朱子)의 해석을 <<주자어류(朱子語類)>>에서 찾아보면 앞의 <<중용(中庸)>>의 내용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은 문구들을 중심으로 풀이되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점은 <<중용(中庸)>>에서 강조한 인간 정성의 내용이 서전에 대한 주자의 설명에서 인간 심성(心性)과 행동의 선(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인심은 인욕이다. 그러므로 위태롭고, 도심은 천리이다. 그러므로 정미하다. 오직 정밀해야 이르러 수 있고 한결같아야 지킬 수 있다. 이와같다면 바야흐로 능히 중(中)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은 극진한 것이다. 유정(惟精)은 정밀히 살펴서 난잡함이 없는 것이다. 유일(惟一)은 머리와 끝이 있어서 오로지 한결같은 것이다. 이것은 요순이래 전해진 것이어서 아직 다른 논의가 없이 앞서부터 이 말이 있었다. 성인의 심법(心法)도 이것을 바꾼 것이 아니다. 경전가운데 이 뜻이 극히 많다. 이른바 선(善)을 택해서 굳게 지키는 것에서 택선(擇善)은 유정(惟

精)이 되고 고집(固執)은 곧 유일(惟一)이다. 또 박학지 심문지 근사지 명판지 같은 것은 모두 유정(惟精)이고 독행은 바로 유일(惟一)이다. 또 명선(明善)같은 것은 바로 유정(惟精)이고 성지(誠之)는 바로 유일(惟一)이다. 대학에서 치지 격물이 유정(惟精)이 아니라면 불가능하고 성의(誠意)는 곧 유일(惟一)이다. 배움이란 바로 이 도리를 배우는 것이다. 맹자 이후 그 전해지는 것을 잃었다는 것은 역시 바로 이것을 잃은 것이다. (중략) 정일집중의 설을 물으니 말하기를 유정(惟精)은 정밀히 살피는 것이 분명함이요 유일(惟一)은 행한 것들이 난잡하지 않은 것이며 집중(執中)은 잡아 지켜 잃지 않는 것이다. (程子曰 人心人欲 故危殆 道心天理 故精微 惟精以致之 惟一以守之 如此方能執中 此言盡之矣 惟精者 精審之而勿雜也 惟一者 有首有尾 專一也 此自堯舜以來所傳 未有他議論 先有此言 聖人心法 無以易此 經中此意極多 所謂 擇善而固執之 擇善 則惟精也 固執 則惟一也 又如 博學之 審問之 近思之 明辨之 皆惟精也 篤行 又是惟一也 又如明善 是惟精也 誠之 便是惟一也 大學 致知 格物 非惟精 不可能 誠意 則惟一矣 學則是學此道理 孟子以後失其傳 亦只是失此 (중략) 問精一執中之說 曰 惟精 是精察分明 惟一 是行處不雜 執中 是執守不失(朱子語類 卷 第七十八) (黎靖德, 1987:2014).

다음으로 성지자(誠之者)의 일면은 『서전서문(書傳 序文)을 많이 읽으면 도에 통하고 대학상장(大學 上章)을 되풀이 읽으면 활연 관통한다(교법 2장 26절)』에서 서전 서문과 함께 언급된 대학 상장에서 찾을 수 있다.

<<대학(大學)>> 상장(上章)의 내용은 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명명덕(明明德), 신민(新民), 지어지선(止於至善)과 성의(誠意) 정심(正心)의 마음가짐으로부터 수신(修身) 제가(齊家) 치국(治國) 평천하(平天下)로 나아가는 일련의 생활자세를 밝히고 있다.

대학의 도는 명덕을 밝히고 백성을 새롭게하며 지극한 선에 이르는 데 있다. 그칠곳을 안연후에 정함이 있고 정함이 있는 연후에 능히 고요해지고 고요한이후에 능히 안하며 안한이후에 능히 사려가 있고 사려가 있는 연후에 능히 터득함이 있다. 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일에는 처음과 마침이 있다. 선후를 안다면 도에 가깝다. 예날에 천하에 덕을 펴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가정을 다스리며 그 가정을 다스리려는 자는 먼저 몸을 닦고 그 몸을 닦고자하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자하는 자는 먼저 그 뜻을 정성스럽게하며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자하는 자는 먼저 그 의지를 다스린다하였다. 앎을 지극히 하는 것은 물상들을 격하는데 있다. 사물의 이치에 이른뒤에 지식이 지극해지고 지식이 지극해진뒤에 뜻이 성실해지고 뜻이 성실해진 뒤에 마음이 바르게 되고

마음이 바르게 된 뒤에 몸이 닦여지고 몸이 닦여진 뒤에 집안이 가지런 해지고 집안이 가지런해진 뒤에 나라가 다스려지고 나라가 다스려진 뒤에 천하가 평해진다.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일체 모두 수신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 두터히 할바에 얹게 하고 그 얹게 할 바에 두터히 할자는 없다.(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至於至善 知止以後有定 定以後能靜 靜以後能安 安以後能慮 慮以後能得 物有本末 事有終始 知所先後 卽近道矣 古之欲明明德於天下者 先治其國 欲治其國者 先齊其家 欲齊其家者 先修其身 欲修其身者 先正其心 欲正其心者 先誠其意 欲誠其意者 先治其志 致知在格物 物格而后知至 知至而后意誠 意誠而后心正 心正而后身修 身修而后家齊 家齊而后國治 國治而后天下平 自天子 以至於庶人 壹是皆以修身爲本 其本亂而末治者 否矣 其所厚者 薄 其所薄者 厚 未之有也)(「大學」 章句)

그리고 위의 <<대학>> 상장을 많이 읽으면 활연관통(豁然貫通)한다고 하였는데, 이 활연관통은 대학의 전(傳)에서 물격(物格)과 치지(致知)를 해설한 <주자집주(朱子集註)>에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성의(誠意)가 격물치지(格物致知)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때 대학에서의 활연관통(豁然貫通)에 대한 내용은 정성과 관계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른바 지식을 지극히함이 사물의 이치를 궁구함에 있다는 것은 나의 지식을 지극히 하고자하면 사물에 나아가 그 이치를 궁구함에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인심의 영특함은 앎이 있지 앎이 없고 천하의 사물은 이치가 있지 앎이 없건만 다만 이치에 대하여 궁구하지 앎이 있기 때문에 그 앎이 다하지 못함이 있는 것이다.이 때문에 대학에서 처음 가르칠때에 반드시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천하의 사물에 나아가서 그 이미 알고 있는 이치를 인하여 더욱 궁구해서 그 극에 이름을 구하지 앎이 없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힘쓰기를 오래해서 하루 아침에 활연히 관통함에 이르면 모든 사물의 표리와 정조가 이르지 앎이 없을 것이요. 내 마음의 전체와 대응이 밝지 앎이 없을 것이니 이것을 물격이라 이르며 이것을 지지라 이른다.(所謂致知 在格物者 言欲致吾之知 在卽物而窮其理也 蓋人心之靈 莫不有知 而天下之物 莫不有理 惟於理 惟未窮 故 其知有不盡也 是以 大學始教 必使學者 卽凡天下之物 莫不因其已知之理而益窮之 以求至乎其極 至於用力之久而一旦豁然貫通焉 則衆物之表裏精粗 無不到 而吾心之全體大用 無不明矣 此謂物格 此謂知之至也)(「大學」)

위에서 << 그 이미 알고 있는 이치를 인하여 더욱 궁구해서 그 극에 이름을 구하지 앎이 없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힘쓰기를 오래해서 하루 아

침에 활연히 관통함에 이르면 모든 사물의 표리와 정조가 이르지 않음이 없을 것이요. 내 마음의 전체와 대응이 밝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이것을 물격이라 이르며 이것을 앎이 지극해진 것이라 이른다.(莫不因其已知之理而益窮之 以求至乎其極 至於用力之久而一旦豁然貫通焉 則衆物之表裏精粗 無不到而吾心之全體大用 無不明矣 此謂物格 此謂知之至也)>>(<<大學>>)의 부분은 <<전경>>에서 < 그 이미 아는 이치에 기인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스스로 열린다(因其已之知理而益窮之 自然心自開也)>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스스로 열리는 차원은 힘쓰기를 오래해서 하루 아침에 활연히 관통함에 이르면 모든 사물의 표리와 정조가 이르지 않음이 없을 것이요. 내 마음의 전체와 대응이 밝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이것을 물격(物格)이라 이르며 이것을 앎이 지극해진 것이라 이른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마음의 차원으로부터 성의와 정심 그리고 일심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물격(物格)과 치지(致知)를 계속해서 힘써 나가는 정성이 없이는 활연관통의 차원과 일심의 근본이 세워질 수 없는 관계를 읽을 수 있다.

또 활연관통(豁然貫通)은 <<대순진리회 요람>>에서 영통(靈通) 도통(道通)에 이르는 인간의 차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경신(誠敬信) 삼법언(三法言)으로 수도(修道)의 요체(要諦)를 삼고 안심안신(安心安身) 이율령(二律令)으로 수행(修行)의 훈전(訓典)을 삼아 삼강오륜(三綱五倫)을 근본으로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고 국법(國法)을 준수하여 사회도덕을 준행하고 무자기(無自欺)를 근본으로 하여 인간 본래의 청정한 본질로 환원토록 수심연성(修心煉性)하고 세기연질(洗氣煉質)하여 음양합덕(陰陽合德) 신인조화(神人調化) 해원상생(解冤相生) 도통진경(道通眞境)의 대순진리(大巡眞理)를 면이수지(勉而修之)하고 성지우성(誠之又誠)하여 도즉아(道卽我) 아즉도(我卽道)의 경지를 정각(正覺)하고 일단 활연관통(豁然貫通)하면 삼계를 투명하고 삼라만상의 곡진이 해에 무소불능(無所不能)하나니 이것이 영통(靈通)이며 도통(道通)인 것이다.(대순진리회 요람 9쪽)

다음으로 <성자 천지도야(誠者 天地道也)>외에 <<중용(中庸)>>의 다른 부

분에 나타나는 성(誠)에 대한 내용을 통해 성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정성으로 말미암아 밝아짐을 성(性)이라 이르고 명(明)으로 말미암아 정성스러워짐을 교(教)라 이르니 정성스러우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정성스러워진다.(自誠明 謂之性 自明性 謂之教 誠則明矣 明則誠矣)(《중용》>>)

이 부분에 대해 주자(朱子)는 집주(集註)에서 <성실하고 밝은 것을 성인의 덕으로서 하늘의 성품을 소유한 것이니 천도(天道)>라 하였으며, <선(善)에 밝아진 후 배움을 통해 더 밝아는 것을 인도(人道)>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오직 천하에 지극히 정성이어야 능히 그 성(性)을 다할 수 있으니, 그 성(性)을 다하면 능히 사람의 성(性)을 다할 것이요 사람의 성(性)을 다하면 능히 물건의 성(性)을 다할 것이요 물건의 성을 다하면 천지의 화육(化育)을 도울 것이요 천지의 화육을 도우면 천지와 더불어 참여하게 될 것이다(惟天下至誠 爲能盡其性 能盡其性則能盡人之性 能盡人之性則能盡物之性 能盡物之性則可以贊天地之化育 可以贊天地之化育則可以與天地參矣)>>(中庸 22章)라는 의미는 <천명을 성(性)>이라 한 내용을 함께 생각할 때 성(性)은 정성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천지의 화육(化育)을 돕는 경지에서 천지와 함께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중용>>의 다른 장에서는 <<성은 스스로 자기만을 이룰 뿐이 아니요 남을 이루어주니 자기를 이룸은 인(仁)이요 남을 이루어줌은 지(智)이다.(誠者 非自成己而已也 所以成物也 成己 仁也 成物 智也 性之德也)>>(《중용》 25장)라고 하여 성(誠)을 인(仁)과 지(智)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지자(智者)가 천지와 같다는 전경에서의 지자에 대한 설명과 연관성을 갖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춘하추동(春夏秋冬)의 기(氣)를 소유한 인간으로 만사(萬事)를 임의대로 용사(用事)하는 경지인데 이것은 천지인(天地人)의 용사가 인간 마음에서 통제됨을 밝힌 부분과 통하는 것으로 인간 마음의 닦여진 정도를 따라 가능한 것이다.

<<전경(典經)>>에서는 지자(智者)의 차원을 세등급으로 구별해 천지 춘하

추동(春夏秋冬)의 기운, 일월(日月)의 현망晦朔(弦望晦朔) 이치, 귀신 길흉화복(吉凶禍福)의 도(道)로 보고 있다.

지혜는 천지와 함께 하고, 춘하추동의 기운을 가지고 있으며, 매사를 뜻대로 하며 이를 일러 지혜용력이라 한다. 큰 지혜는 천지와 함께 하고 춘하추동의 기운이 있다. 다음으로는 일월과 함께 하며 현, 망, 회, 삭의 이치가 있다. 또 다음으로는 귀신과 함께 하며 길흉화복의 도가 있다. (智者 與天地同 有春夏秋冬之氣 每事 任意用之 謂之智慧勇力 大智 與天地同 有春夏秋冬之氣 其次 與日月同 有弦望晦朔之理 又其次 與鬼神同 有吉凶禍福之道)(제생 43절)

지자(智者)의 세 등급은 <<상제께서 말씀을 계속하시기를 “孔子는七十二명만 통예시켰고 석가는 五백명을 통케 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주리니 상재는 七일이요, 중재는 十四일이요, 하재는 二十一일이면 각기 성도하리니 상등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 하셨도다.>>(교운 1장 47절) 라고한 내용에서 상등 중등 하등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것을 <<중용(中庸)>>에서는 <<오직 천하의 지극한 성인이어야 능히 총명예지스러울수 있다(有天下之誠 爲能聰明叡智)>>(<<中庸>>) 라고 표현하고 있다. 나아가 천하지성(天下至誠)의 경지를 최고의 도달점으로 보고 있다.

오직 천하에 지극히 성실한 분이어야 능히 천하의 대경(大經)을 경륜(經綸)하며 천하의大本(大本)을 세우며 천지의 화육(化育)을 알 수 있으니 어찌 따란 것에 의지할 곳이 있겠는가(唯天下至誠 爲能經綸天下之大經 入天下之大本 知天下之化育 夫焉有所倚) (<<中庸>>)

이러한 심신의 수행은 첫째 위에서 정일집중(精一執中) 건중건극(建中建極)의 해석에서 정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둘째로 도주 조정산이 선포한 「포유문(布喻文)」에서 인간에게 있어 지극한 보배가 심령(心靈)임을 밝히고 심령이 통해야 천지 귀신과 수작(酬酌)이 가능하고 만물과 더불어 질서를 찾을 수 있다는 내용과 연관성을 갖는 것이다.

<<중용(中庸)>>에서는 귀신(鬼神)에 대해 <<귀신에게 질정(叱正)하여도 의심이 없음은 하늘을 아는 것이다(質諸鬼神 而無疑 知天)>>(<<중庸>>)라 하고, 물(物)에 대해에서는 <정성으로 물건이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물건의 마침과 시작이니 정성이 아니면 사물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정성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誠者 物之終始 不誠 無物 是故 誠之爲貴)>(<<중庸>>25장) 라고 적고 있다.

심령이 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부단한 정성속에서 심령이 도에 이르러 천지의 화육을 돕고 천지와 더불어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의 <지자(智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신인(神人)>이 나타나는데 신인의 경지는 음양과 오행을 자유자재(自由自在)로 할 수 있는 차원이다.

모든 일은 음에서 일어나 양으로 펼쳐치니, 먼저 보이지 않는 것과 음을 살펴 밝음과 양을 보라, 매사에 먼저 시발하는 곳을 살펴야 한다. 모든 일은 음에서 일어나 양으로 드러나며, 양이 일어나면 음은 숨는다. 모름지기 먼저 음양을 살펴야 한다. 음양은 곧 물과 불이다. 매일 쓰는 사물과 기거동정이 이목구비(耳目口鼻)의 총명한 도리에 있다. 귀는 수에 속하고, 눈은 화에 속한다. 이목(耳目)이 명백해져야 만사를 알 수 있다. 물에서 불이 생기고, 불에서 물이 생하고, 금은 목을 생하고, 목은 금을 생한다. 쓰임을 알 수 있어야 바야흐로 신인이라 할 수 있다. 음이 쇠하면 양이 생하고, 양이 쇠하면 음이 생한다. 생쇄의 도는 음양에 있다. 사람이 가히 음과 양을 쓸 수 있는 연후에야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萬事起於陰 以布陽 先察陰晦 以觀陽明 每事先觀始發處 陰起事而陽明 陽起事而陰匿 要須先察陰陽 陰陽則水火而已 日用事物起居動靜 在於耳目口鼻 聰明道理 耳屬水 目屬火 明白然後萬事可知 水生於火 火生於水 金生於木 木生於金 其用可知然後 方可謂神人也 陰殺陽生 陽殺陰生 生殺之道 在於陰陽 人可用陰陽然後 方可謂人生也)(제생 43절)

이러한 음양 오행과 관련 수기(水氣)를 돌리고 음양도수를 바로 잡는 등의 이적(異蹟)이 행해진다.

“이제 천하에 물기운이 고갈하였으니 수기를 돌리리라” 하시고 피란동 안씨재실(避亂洞 安氏齋室)에 가서 우물을 대나무(竹)가지로 한 번 저으시고 안 내성에게 “음양이 고르지 않으니 재실에 가서 그 연고를 묻고 오너라”고 이르시니 그가 돌아와서 그대로 아뢰이니 상제께서 들으시고 “땀 기운이 있도다. 행랑에 가보라”고 다시 안 내성에게 이르시니 내성은 가보고 와서 “행랑에 행상(行商)하는 양주가 들어있나이다”고 아뢰니

라.(공사 3장 21절)

상제께서 어느날 후천에서의 음양도수를 조정하시려고 종도들에게 오주를 수련케 하셨도다. 종도들이 수련을 끝내고 각각 자리를 정하니 상제께서 종이쪽지를 나누어 주시면서 “후천 음양도수를 보려하노라. 각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점을 찍어 표시하라”고 이르시니 종도들이 마음에 있는 대로 점을 찍어 올리니라. 웅종은 두 점, 경수는 세 점, 내성은 여덟 점, 경석은 열두 점, 공신은 한점을 찍었는데 “아홉점이 없으니 자고로 일남 구녀란 말은 알 수 없도다”고 말씀하시고 내성에게 “팔선녀란 말이 있어서 여덟 점을 쳤느냐”고 묻고 웅종과 경수에게 “노인들이 두 아내를 원하나 어찌 감당하리오”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후천에서는 새로운 기력이 나지 아니하리까”고 되물으니 “그럴 듯 하도다”고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상제께서 경석에게 “너는 무슨 아내를 열 둘씩이나 원하느냐”고 물으시니 그는 “열두 제국에 하나씩 아내를 두어야 만족하겠나이다”고 대답하니 이 말을 듣고 상제께서 다시 “그럴 듯 하도다”고 말씀을 건너시고 공신을 돌아보면서 “경석은 열 둘씩이나 원하는 데 너는 어찌 하나만 생각하느냐”고 물으시니 그는 “건곤(乾坤)이 있을 따름이오 이곤(二坤)이 있을 수 없사오니 일음 일양이 원리인 줄 아나이다”고 아뢰니 상제께서 “너의 말이 옳도다”고 하시고 공사를 잘 보았으니 “손님 대접을 잘 하라”고 분부하셨도다. 공신이 말씀대로 봉행하였느니라. 상제께서 이 음양도수를 끝내고 공신에게 “너는 정음 정양의 도수니 그 기운을 잘 견디어 받고 정심으로 수련하라”고 분부하시고 “문왕(文王)의 도수와 이윤(伊尹)의 도수가 있으니 그 도수를 말으려면 극히 어려우니라”고 알려주셨도다.(공사 2장 16절)

물기운을 임의대로하고 인간계 음양관계인 일부일처(一夫一妻)의 공사를 처결하는 신인의 능력은 상제의 위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상제 자신의 위치임이 <<전경(典經)>>에서 나타난다.

상제께서 이 곳에 며칠 머물고 다시 계속하시여 경기 황해 평안 함경 경상도(京畿.黃海.平安.咸鏡.慶尙道)의 각지에로 두루 유력하셨느니라. 어느날 상제께서 전주부에 이르시니 부중 사람들이 상제를 신인(神人)으로 우러러 모시니라.(행록 2장 3절)

조정산(趙鼎山) 도주(道主)에게 삼계대순(三界大巡)의 진리를 감오득도(感悟得道)하게하고 포교오십년공부(布教五十年工夫)에서 계속적인 계시(啓示)를 내린 신인(神人)도 상제이다.

도주께서는 구년의 공부 끝인 정사년에 삼계의 삼계대순(三界大巡)의 진리를 감오(感悟)하시도다.(교운 2장 6절)

도주께서 어느날 공부실에서 공부에 전력을 다하시던 중 한 신인이 나타나 글씨를 쓰던 종이를 보이며 “이것을 외우면 구세제민(救世濟民)하리라”고 말씀하시기에 도주께서 예를 갖추려 하시니 그 신인(神人)은 보이지 않았으며, 그 글은 “시천주造化정 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위대강(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 至氣今至願爲大降) 이었도다.(교운 2장 7절)

그후에 도주께서 공부실을 정결히 하고 정화수 한 그릇을 받들고 밤늦으로 그 주문을 송독하셨도다. 그러던 어느날 “왜 조선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태인에서 가서 나를 찾으라”는 명을 받으시니 이때 도주께서 이국 땅 만주 봉천에 계셨도다.(교운 2장 8절)

<천지 성경신(天地 誠敬信)>의 원리하에 신인(神人)의 정성은 천지인삼계의 대권을 용사해 천지공사로서 상극과 원한에 가득찬 병든 우주를 제생케해 후천선경(後天仙境)을 이루는 존재로 천지공사(天地公事)의 의미와 함께 강조되고 있다.

상제께서 이듬해 사월에 김 형렬의 집에서 삼계를 개혁하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이 때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따라서 행할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그것을 비유컨대 부모가 모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얻어 쓰려면 쓸때 마다 얼굴이 쳐다보임과 같이 낡은 집에 그대로 살려면 엎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불안하여 살기란 매우 괴로운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 하여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오.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오.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하시고 “너는 나를 믿고 힘을 다하라”고 분부하셨도다.(공사 1장 2절)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고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물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

이 곧 三界公事이니라”고 김 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중의 명부공사(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 (공사 1장 3절)

상제가 << 삼계의 대권을 수시수의로 행하셨느니라. 쏟아지는 큰비를 걷히게 하시려면 종도들에 명하여 화로에 불덩이를 두르게도 하시고 술잔을 두르게도 하시며 말씀으로도 하시고 그 밖에 풍우, 상설, 뇌전을 일으키는 천계대권을 행하실 때나 그외에서도 일정한 법이 없었도다.(공사 1장 4절)>>에서 처럼 삼계 권능을 보인 천계 지계 인계 대권의 주재자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천지 성경신(天地 誠敬信)이라는 내용이 상제에 대한 성경신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것은 동학을 주창한 수운 최제우가 경신년(1860년) 상제로부터 천명과 신교를 받아 득도한 것이 자신이 상제로서 행했던 일이었으며, 그후 자신이 최제우의 천명과 신교를 다시 거두었음으로 천지공사에 의해 새로운 질서가 우주에 열리게 됨을 보였던 것이다.

상제께서 어느 날 김 형렬에게 가라사대 “서양인 利瑪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할건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딴 것이라” 이르시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끝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겹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西洋 大法國 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大巡하다가 이 東土에 그쳐 母岳山 金山寺 三層展 彌勒金佛에 이르러 三十年을 지내다가 최제우에게 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현을 넘어 대도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르므로 甲子年에 드디어 천명과 神敎를 거두고 辛未年에 강세하였노라”고 머말씀하셨도다.(교운 1장 9절)

“나는 西洋 大法國 天啓塔에 내려와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삼계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혁하여 선경을 열고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들을 건지려고 너의 동방에 순회하던 중 이 땅에 머문 것은 곧 참화 중에 문헌

무명의 약소 민족을 먼저 도와서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주려 하노라. 나를 좇는 자는 영원한 복록을 얻어 불로 불사하며 영원한 선경의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참 동학이니라. 궁을가(弓乙歌)에 조선강산명산(朝鮮江山名山)이라. 도통군자(道通君子) 다시 난다"라 하였으니 "또한 나의 일을 이름이라 동학 신자간에 대선생(大先生)이 갱생하리라고 전하니 이는 대선생(代先生)이 다시 나라라는 말이니 내가 곧 대선생(代先生)이로다"라고 말씀하셨도다.(권지 1장 11절)

상제는 동학 신자들간에 최제우의 갱생을 대선생이 갱생한다고 하는 것을 최제우의 갱생이 아닌 상제 자신의 강세로 깨우치고 대선생의 대가 큰 대(大)자를 쓴 대선생(大先生)이 아닌, 대신할 대(代)자를 쓴 대선생(代先生)으로서의 자신임을 밝혔다. 원래 대선생은 동학에서 수운을 부르는 호칭이었다. 대선생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동학 신도들의 믿음에 빗대어, 증산은 이는 대선생인 수운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운을 대신한 대선생인 자신의 탄생을 가리킨 예언이라고 풀이했다. 이러한 독특한 해석을 통해 증산은 대선생인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믿는 일이야말로 바로 참 동학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증산은 수운과 관련하여 자신의 입지를 세우고 있으며, 수운의 활동에 근거하여 자신의 일을 설명하였다.(김탁,1995: 161)

증산은 동학의 발생 자체가 자신의 계시로 인해 가능했던 일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증산은 수운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준 상제 또는 한울님으로 믿어진다. 증산교의 이러한 믿음은 한국종교사에서 또 다른 획기적인 사건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선계의 절대적 권능을 지닌 최고 주체자가 인간 세상에 직접 강림했다는 증산의 주장은, 이전의 한국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이다. 지상의 인간에게 계시를 내려주었으나 그가 맡은 바 신명을 다하지 못하자 이제 직접 인간의 몸을 빌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증산교의 믿음은, 세계종교사에서도 독특하게 평가받아야 할 정도이다. 물론 증산의 이러한 주장은 시대적으로 앞선 동학을 창조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증산은 수운의 죽음과 자신의 출생 사이의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자신이 동학의 완성자로서 이 땅에 강림했다고 주장하였다.(김탁,1995: 175)

이를따라 상고시대의 치우와 황제의 사례를 인용해 보이고 당시의 전봉준의 동학난으로 야기된 천하의 난을 스스로 치란하기위해 강세했음을 보였다.

“난을 짓는 사람이 있어야 다스리는 사람이 있나니 치우(蚩尤)가 작란하여 큰 안개를 지었으므로 황제(黃帝)가指南車(指南車)로써 치난하였도다. 난을 짓는 자나 난을 다스리는 자나 모두 조화로다. 그러므로 최제우(崔濟愚)는 작란한 사람이오 나는 치란하는 사람이니라. 천명숙은 천하에 난을 동케 하였느니라.(교법 3장 30절)

그점은 동학난의 실패를 예견하고, 이제 동학의 주문으로는 상제의 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과 향후 주문에 의해 받는 강은 상제에 의해 있게 되는 천강이며 의통과 관계되는 영역임을 밝힌 부분에서 또한 볼 수 있다.

전봉준(全 璘準)이 학정(虐政)에 분개하여 동학도들을 모아 의병을 일으킨 후 더욱 세태는 흉동하여져 그들의 분노가 충천하여 그 기세는 날로 심해져가고 있었도다. 이 때에 상제께서 그 동학군들의 전도가 불리함을 알으시고 여름 어느날 <월흑안비고 선우야둔도 옥장경기축 대설만궁도(月黑雁飛高 單于夜遁逃 欲將輕騎逐 大雪滿弓刀)>의 글을 여러 사람에게 외워주시며 동학군이 눈이 내릴 시기에 이르러 실패할 것을 밝히시고 여러 사람에게 동학에 들지 말라고 권유하셨느니라. 과연 이 해 겨울에 동학군이 관군에게 패멸되고 상제의 말씀을 좇은 사람은 화를 면하였도다.(행록 1장 23절)

상제께서 어느날 한가로히 공우와 함께 계시는데 이 때 공우가 옆에 계시는 상제께 “동학주(東學呪)에 강(降)을 받지 못하였나이다”고 여쭙니 “그것은 다 제우강(濟愚降)이고 천강(天降)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도다. 또 “만일 천강을 받은 사람이면 병든 자를 한번만 만져도 낫게 할 것이며 또한 건너다 보기만 하여도 나올지니라. 천강(天降)은 뒤에 있나니 잘 뒤으라”고 일러주셨도다.

그리고 증산은 동학의 주문은 한계를 지닌 불완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증산은 동학의 주문수련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적은 수운 최제우의 개인적인 능력에 근거하여 일어나는 신비체험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하늘의 능력에 기인하는 천강(天降)을 받은 사람은 동학의 주문을 외워서 얻는 이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은 정도로 엄청난 수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증산은 천지를 개벽하고 인간과 하늘의 혼란을 바로잡는 일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것이 바로 동학이 진정으로 바라던 일이었다고 말한다.(김탁, 1995:169)

이러한 맥락에서 신인(神人)은 천명(天命)과 신교(神敎)를 임의대로 행사하

고 도통의 대두목과 천강(天降)을 내려주는 권능의 소유자로 나타나는데 수운 최제우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렸다는 점은 동학과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은 수운(水雲)이 밝힌 상제와 상제로서의 증산이 같은 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는 면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신은 신적 존재와 관련되어 주문을 통해 인간과 매개되는 점을 볼 수 있다.

복록성경신 수명성경신 지기금지원위대강(福祿誠敬信 壽命誠敬信 至氣
 今至願爲大降)(교운 1장 30절)

주우영가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위대강 주우수명 천지
 성경신(宙宇詠歌 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至氣今至願爲大降 宙宇壽
 命 天地誠敬信)(《玄武經》 20면)

위에서 주문 <지기금지 원위대강>이 <복록성경신(福祿誠敬信) 수명성경신(壽命誠敬信)>(교운 1장 30절) <주우수명 천지성경신(宙宇壽命 天地誠敬信)>(《玄武經》 20면) 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찾을 수 있다. <지기금지 원위대강>은 최제우와 조정산이 상제에게서 받은 주문의 일부이다.

동학에서는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지기금지원위대강(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至氣今至願爲大降)>에서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를 선생주문으로 <지기금지원위대강(至氣今至願爲大降)>을 학생주문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위의 《현무경》에서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를 주우영가(宙宇詠歌)로 <지기금지원위대강(至氣今至願爲大降)>을 주우수명(宙宇壽命)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우(宙宇)는 우주(宇宙)에서 우와 주를 바꾼 단어로 후천세계의 우주를 시간개념을 선행해 나타낸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후천 주우의 영가와 수명으로서의 <시천주>의 위상이 드러난것이라 할 수 있다.

<시천주(侍天呪)>의 담긴 뜻에 대해서 《동학(東學)》의 《동경대전(東經大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주문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극히 한울님을 위한 글이기 때문에 주문이라고 말한 것이니, 지금 글에도 있고 옛 글에도 있다.

<지기금지 원위대강(至氣今至 願爲大降)>이라고 한 강령문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至)라고 한 것은 지극하다는 뜻, 기(氣)라는 것은 허령창창(虛靈蒼蒼)하여 간섭하지 않는 일이 없고, 명령하지 않는 일이 없고, 형용이 있는 듯하나 형상하기 어렵고,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나 보기 어려우니, 이것도 또한 혼원지기(渾元之氣)의 한가지이다. 지금 이른다<今至>한 것은 이에 도에 들어와서 그기에 접촉함을 안다는 뜻, 원위(願爲)라 한 것은 이에 청하여 비는 뜻, 대강(大降)은 기화(氣化)를 원하는 발이다.

<시천주(侍天主) 조화정(造化定) 영세불망 만사지」라고 한 주문에서 시라고 한 것은 안으로 신령이 있고 밖으로 기화가 있어서 온 세상 사람이 각자 옮기지 못할 것을 아는 것, 주(主)라 함은 존칭이니 부모와 같이 섬기는 것, 조화(造化)라 함은 무위이화(無爲而化)를 말함이고, 정(定)이라 함은 그 덕에 합하여 그 마음을 정하는 것, 영세(永世)라 한 것은 사람의 평생이고, 불망(不忘)이라 함은 언제나 생각하고 있다는 뜻, 만사(萬事)라 한 것은 수의 많음을 표현한 것, 지(知)라 한 것은 그 도를 알고 그 지혜를 받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밝고 밝은 그 덕을 생각하고, 생각하여 잊지아니하면지기(至氣)에 화하여 지성(至聖)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曰呪文之意何也 曰至爲天主之字 故以呪言之 今文有 古文有 曰降靈之文 何爲其然也 曰至者 極焉之謂 至氣者 虛靈蒼蒼 無事不涉 無事不命 然而 如形而難狀 如聞而難見 是亦渾元之一氣也 今至者 於斯入道知其氣接者也 願爲者 請祝之意也 大降者 氣化之願也 侍者 內有神靈 外有氣化 一世之人 各知不移者也 主者 稱其尊而與父母同事者也 造化者 無爲而化也 定者 合其德定其心也 永世者 人之平生也 不忘者 存想之意也 萬事者 數之多也 知者 知其道而受其知也 故明明其德 念念不忘 則至化至氣 至於至聖)(《東經大典》)

위의 <시천주>의 의미는 한울님을 모시고 한울님의 덕에 합치하도록 마음을 정하여 한평생 잊지 않는다면 온갖 일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한울님 천주에 대한 내용은 전경의 상제에 대한 것으로 귀결되는데, 이것은 위에서 <시천주>가 상제와 관련된다는 점은 <태을주>의 경우에서 그 주문의 내용이 천상 신계의 태을 천상원군, <운장주(雲長呪)>에서는 관운장(關雲長)과 관계되고 있는 내용에서도 같이 나타난다.

어느날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오는 잠을 적게 자고 태을주를 많이 읽으

라. 그것이 하늘에서 으뜸가는 임금이니라. 오만년 동안 동리 동리 각 학교마다 외우리라” 하셨도다.(교운 1장 60절)

황 응중이 노랑닭 한 마리를 상제께 올리니라. 상제께서 밤 중에 형렬에게 그 닭을 잡아 삶게 하고 김 형렬, 한 공숙, 류 찬명, 김 자현, 김 갑철, 김 송환, 김 광찬, 황 응중 등과 나눠 잡수시고 雲長呪를 지으셔서 그들에게 단번에 외우게 하셨도다. 이것이 그 때의 운장주이니라.(天下英雄關雲長 依幕處 近聽天地八位諸將 六丁六甲六丙六乙 所率諸將 一別屏營 邪鬼吟吟急急 如律令 娑婆呀)(교운 1장 22절)

주우영가 주우수명으로서 시천주의 지기금지 원위대강은 영원한 노래 수명의 의미로 인간 성경신의 귀착점이 상제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병겁이 들 때 수명(壽命)을 누릴수 있는 구원(救援)의 길이 상제를 부르면 살아날 수 있다는 내용에서도 볼 수 있다.

상제께서 하루는 공우에게 마음속으로 六任을 정하라고 명하셨도다. 공우가 생각한 여섯 사람 중 한 사람이 불가하다 하시여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정하였더니 이 사람들을 부르사 불을 끄고 동학 주문을 외우게 하여 밤새도록 방안을 돌게 하다가 불을 켜 보게 하시니 손씨가 죽은 듯이 엎어져 있느니라. 상제께서 “나를 부르라”고 그에게 이르니 그는 겨우 정신을 돌려 상제를 부르니 기운이 소생하니라. 상제께서 이 일을 보시고 종도들에게 “이는 허물을 지은 자니라. 이후에 괴병이 온 세상에 유행하리라. 자던 사람은 누운 자리에서 앉은 자는 그 자리에서 길을 가던 자는 노상에서 각기 일어나지도 못하고 옮기지도 못하고 혹은 엎어져 죽을 때가 있으리라. 이런 때에 나를 부르면 살아나리라.”고 이르셨도다.(예시 41절)

이것은 상제의 권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경의 <제생(濟生)>편에 병으로 고통받는 민중의 구제에 대한 실화를 통해 상제의 인간 수명 관장의 면을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병에 대한 고통으로부터의 생민구제를 위한 권능의 용사가 나타난다. 상제는 인계대권의 행사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병을 다스리는 치병을 행하였으며 만국의원(萬國醫院)공사를 통해 제병(除病)을 구현하였다. 치병(治病)의 행사는 병의 원인을 상세히 찾아내 치유하는 상제의 권능에 기인한다.

상제는 각각의 환자들에게 맞는 의법(醫法)을 베풀어 병을 치유하거나 직

접 대속(代贖)을 통해 여러 질병을 없애는 권능도 용사하였다.(제생 23절) 제생 방법에 있어서는 개략적으로 주문(呪文)이나 글로 기운을 응하게하거나(제생 7,10,14,20절) 병의 전이(轉移)로 치병하는 것이 있다.(제생 6,24,31절) 또 음식(제생 22,35,39절),약재(37절), 심고(心告)(12절) 그리고 말씀(8절)이나 상제님의 방문(44절)등을 통해 치병이 이루어진다.(高南植.1990:308) <제생>편에 나타난 상제의 권능하에 이루어진 주요 치병사례를 정리하면 아래 내용과 같다.

< 병과 주요 제생방법 >

- 5절 산후복통 - '나를 믿고 근심을 놓으라' 는 말씀
- 7절 치질 - 시천주를 일곱 번씩 외움
- 8절 간질병 - '나를 따르라' 는 말씀
- 9절 급병으로 사망 - '미수를 시켜 우암을 불러라',침,미음
- 11절 앓은뱅이 - '中央神將造化云呑命命'
- 14절 문둥병 - 대학우경. 일장을 읽음
- 20절 오한 두통 - 오행의 기운을 붙임. 육십사괘를 암송
- 22절 폐병 - 닭 한마리
- 23절 괴질 - '胡不犯帝王將相之家 犯無辜蒼生之家乎'의 칙령
- 25절 앓은뱅이 - 쇠고기, 참기름
- 33절 천포창 - 상제께서 진노, 견책함
- 41절 단독 - '말이 잘 되도록 축수하라' 고 부탁함

한편 <<전경>> <제생>편에 나타나는 치병의 예는 죽음에 처한 환자를 구원해 주는 차원에까지 이르고 있다. 나아가 동곡약방(銅谷藥房)의 설치에 상제의 무한무량한 권능으로 각종 원인으로 야기된 우주의 병을 제거해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 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예시 80, 81절)』 라는 내용처럼 불노불사, 불로장생의 세계를 구현하는 일과 관련돼 있다. (高南植.1999:242)

병을 고쳐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일만이 아니라 복록에 있어서도 인간의 일심이 중요함을 <<인간의 복록은 내가 맡았으나 맡겨 줄 곳이 없어 한이 로다. 이는 일심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일심을 가진 자에게 지체없이

베풀어주리라.>>(교법 2장 4절) 고 하여 상제는 강조하고, 그것이 자신에 의해 주재되는 것임도 밝히고 있는데, 이점 또한 상제의 권능의 차원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제 범사에 성공이 없음은 한 마음을 가진자가 없는 까닭이라. 한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한할 것이로다. 안 되리라는 생각을 품지말라.(교법 2장 5절)

또한 상제는 <<이제 너희들에게 다 각기 운수를 정하였노니 잘 받아 누릴 지어다. 만일 받지 못한자가 있으면 그것은 성심이 없는 까닭이니라.>>(교법 2장 37절) 고 하여 천강(天降)으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복록과 수명은 인간에게 열려지는 운수를 따라 있게되고 운수의 수수(授受)는 인간의 정성어린 마음에서 있게되는 상관성을 갖고 있다.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운수는 열려도 자신이 감당치 못하면 본곳으로 되돌아 가기도 하고 혹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기도 하리라. 잘 믿을 지어다”고 경고하셨도다.(교법 2장 38절)

이것은 인간 정성이 상제에 대한 것임을 강조한 『대순진리회 요람』과 『대순지침』에서도 찾을 수 있다.

<경천(敬天)>:

모든 행동(行動)에 조심(操心)하여 상제님(上帝任) 받드는 마음을 자나 깨나 잊지 말고 항상 상제께서 가까이 계심을 마음 속에 새겨 두고 공경(恭敬)하고 정성(精誠)을 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수도(修道)>:

마음과 몸을 침착(沈着)하고 잠심(潛心)하여 상제님(上帝任)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정신(精神)을 모아서 단전(丹田)에 연마(鍊磨)하여 영통(靈通)의 통일(統一)을 목적(目的)으로 공경(恭敬)하고 정성(精誠)을 다하는 일념(一念)을 스스로 생각하여 끊임없이 잊지 않고 지성(至誠)으로 봉축(奉祝)하여야 한다. (대순진리회 요람 15-16)

성은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이 한결같이 상제님을 받드는 일이다.(대순지침 51-52쪽)

인간이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늘 법리에 맞게 하여 상제의 가르침에 따르

도록 수행해서 영통을 이루는 일이 경천과 수도의 주요 내용이라는 것은, 믿음의 조목인 삼요체의 하나인 성의 근원이 상제에게 귀착됨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Ⅲ. 人間의 誠과 福祿壽命

인간의 복록과 수명은 도통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도통에는 인간의 부단한 성경신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복록과 수명이 성경신에 있다는 것은 복록 수명을 받는 것이 도통이므로 도통에 인간 성경신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해석해 도통과 관련된 내용들은 성경신과 관계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더욱이 성경신(誠敬信)이 추상적 개념이므로 본장에서는 이러한 개괄성 속에서 도통과 성경신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 보기로 한다.

인간 복록과 수명이 성경신에 있다는 내용을 앞에서 언급한 천지 성경신이라는 부분과 함께 볼 때 인간이 성경신으로 운행되는 천지의 법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찾을 수 있다. 또 이것은 앞장에서 천지에 신명이 가득하다는 내용을 생각할 때, 천지 신명이 일정한 기준을 따라 인간 성경신의 정도를 수찰 판단해 복록과 수명을 인간에게 내려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들의 성경신에 따른 도통의 평가는 신(神)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공우가 어느날 상제를 찾아 뵈옵고 도통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니라. 상제께서 이 청을 꾸짖고 가라사대 “각 姓의 선령신이 한 명씩 천상 공정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이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베풀면 모든 선령신들이 모여 편벽됨을 힐난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볼 수 없도다. 도통은 이후 가기 닦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 하셨도다. (교운 1장 33절)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니와 도통 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교운 1장 41절)

상제께서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혁이니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쓸 지어다.”라고 말씀하셨도다.(예시30절)

위에서 << 각기 닦은 바에 따라,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는 내용은 인간 각자의 성경신(誠敬信)의 차이에 따라 신의 평가가 결정됨을 보여준다.

또한 이것은 <<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니와 도통 될 때에는 유불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교운 1장 41절) 는 구절에서 도통에 있어 유불선 도통신들이 도에 통하게 한다는 것은 신이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도통, 복록수명에 있어 중요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다.

신은 인간 마음을 매개로 하여 통하고 인간의 정성스런 일심에 따라 응하는 신의 차원이 다르게 된다.

또한 인간은 참된 성품을 찾아 정성을 지극히 함으로써 인간이 신과 같아지는 차원이 열리게 된다.

성(性)은 마음이 밝아져야 천품성을 깨닫는다(開心見性) 하였으니, 참된 성품을 살피서 허망한 일을 하지 않는(眞實無妄) 지성(至誠)에 이르면 신(神)과 같아지느니라 (대순지침 75쪽)

나아가 이것은 인간 정성의 나아갈 방향을 시사한다. 신이 인간의 복록수명을 내려주는 데 있어 인간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어떠한가하는가를 생각할 때 복록수명은 도통 곧 운수라는 의미와 통하고 인간의 자세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너희들에게 다 각기 운수를 정하였노니 잘 받아 누릴지어다. 만일 받지 못한자가 있으면 그것은 성심이 없는 까닭이니라.(교법 2장 37절)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운수는 열려도 자신이 감당치 못하면 본곳으로 되돌아 가기도 하고 혹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기도 하리라. 잘 믿을 지 어다”고 경고하셨도다.(교법 2장 38절)

위의 내용은 운수 즉 복록 수명이 인간의 성심(誠心)과 관련되어 있는데 노력여하에 따라 그것을 받는 대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운수를 받을 수 있는 정성의 일면은 중용에서

至誠은 無息이니 不息이면 오래고 오래면 징험이 나타나고, 징험이 나타나면 悠遠하고 悠遠하면 博厚하고 博厚하면 高明하다(至誠無息 不息則久 久則徵 徵則悠遠 悠遠則博厚 博厚則高明)(中庸 26章)

오직 천하에 지극히 성실한 분이어야 능히 천하의 대경을 경륜하며, 천하의 대분을 세우며, 천지의 화육을 알 수 있으니, 어찌 만 것에 의지할 것이 있겠는가(唯天下至誠 爲能經綸天下之大經 立天下之大本 知天地之化育 夫焉有所倚)(中庸 26章)

라고 하여 지극한 정성을 강조하고, 그러한 경지에 있는 인물이 천하의 대본과 대자연의 화육을 이룰수 있는 차원으로 설명한 부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제 몇가지 종교적 수행과 관련된 서적을 통해 삼요체내에서 정성의 뜻을 보기로 한다. 대순사상에서 복록과 수명은 인간의 도통, 운수와 관계되어 궁극적으로 인간이 불노불사(不老不死) 무병장수(無病長壽)의 수명속에 영원한 복록을 얻는 것이다.

먼저 성경신은 복록 수명의 요체로서 성경신의 정의를 통해 그 의미를 찾아 보면 아래와 같다.

성과 경과 신은 모두 인간 마음 정신 작용에 근원하는 것으로 일상적이 아닌 어떠한 목적의식속에서 표출되는 좀더 적극적이고 강렬한 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대순진리회 요람에서는 성경신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성(誠)>:

도(道)가 곧 나요, 내가 곧 도(道)라는 境地에서 心靈을 統一하여 萬化度濟에 이바지 할지니 마음은 一身을 主管하며 全體를 統率 理用하니,

그러므로 一身을 생각하고 念慮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게하는 것은 오직 마음에 있는 바라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이니 精誠이란 늘 끊임이 없이 稠密하고 틈과 섬이 없이 오직 不足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룸이다.

<경(敬)>:

敬은 心身의 움직임을 받아 一身上 禮儀에 알맞게 行하여 나아가는 것을 敬이라 한다.

<신(信)>:

한마음을 定한 바엔 利益과 損害와 邪와 正과 便辟과 依支로써 바꾸어 고치고 變하여 옮기며 어긋나 差異가 생기는 일이 없어야 하며 하나를 둘이라 앎고 셋을 셋이라 앎고 저것을 이것이라 앎고 앞을 뒤라 안하며 萬古를 通하되 四時와 晝夜의 어김이 없는 것과 같이 하고 萬劫을 經過하되 江河와 山岳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이 하고 期約이 있어 이르는 것과 같이 하고 限度가 있어 定한 것과 같이 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며 精誠하고 또 精誠하여 企待한 바 目的에 到達케 하는 것을 信이란 한다. (대순진리회 요람 16쪽)

이러한 성(誠)에 대한 의미는 대순지침(大巡指針)에서는 몇가지 세분화된 설명으로 해석되어, 인간이 지성(至誠)으로 마음을 닦아 생활해 신(神)과 같아져 도통진경(道通眞境)에 이르는 일련의 내용들로 되어 있다.

성은 사람의 정기신의 합일의 진성이다.

천도의 운행이 차착이 없으므로 남이 모름에 궤의치 말아야한다.

불일이이의 본심인 인선(仁善)의 자성이 도성(道誠)의 정석(定石)이 되므로 성이 아니면 만물도 존재하지 못한다.

전경에 성을 지극히 하라 하셨으니 성의 소귀함을 깨달아 봉행하여야 한다.

도주님께서 먼저 나의 마음을 참답게 함으로써 남의 마음을 참답게 하고, 먼저 내몸을 공경함으로써 남도 몸을 공경하게 되며, 먼저 나의 일을 신의로써 하면 남들이 신의를 본받게 된다.(先誠吾心 以誠他心 先敬吾身 以敬他身 先信吾事 以信他事)(대순지침 70쪽)

성(性)은 마음이 밝아져야 천품성을 깨닫는다(開心見性) 하였으니, 참된 성품을 살피서 허망한 일을 하지 않는(眞實無妄) 지성 至誠에 이르면 신 神과 같아 지느니라 (대순지침 75쪽)

자고로 마음이 참되지 못하면 뜻이 참 답지 못하고, 뜻이 참되지 못하면

행동이 참 답지 못하고, 행동이 참되지 못하면 도통진경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心不誠 意不誠 意不誠 身不誠 身不誠 道不成)(대순지침 76쪽)

이러한 내용들은 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이 자신을 완성시키고 타인을 감화시키며 인간이 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중요한 요체임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일면 중용의 주자집주(朱子集註)에서 < 성은 진실해 망령됨이 없는 것을 이른다. 천리의 본연이다. 생각하지 않아도 얻으니 얹어 나오며 힘쓰지 않아도 적중하니 행함에 편안함이 있다(誠者 眞實無妄之謂 天理之本然也... 不思而得 生知也 不勉而中 安行也)>(朱子集註) 라고 한 내용과 관련 되고, 중용 원문에서 성에 대해 도덕적 가치로서의 인간의 인과 지를 말한 부분과도 연결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성은 스스로 자기만을 이룰 뿐이 아니요 남을 이루어주니 자기를 이룸은 인이요 남을 이루어준은 지이다.(誠者 非自成己而已也 所以成物也 成己 仁也 成物 智也 性之德也)(중용 25장)

그리고 요람(要覽)에서 성(誠)은 사강령(四綱)의 경천(敬天)과 수도(修道)에서 상제(上帝)에 대한 일심(一心)으로 설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일심은 대순사상에서 도통과 관계있는 서전 서문에서 정일집중과 건중건극에서 정일 곧 유정유일의 유일과 통하는 마음의 상태로 볼 수 있다.

최익현이 의병 투쟁에서 살아난 경우를 일심에 의해 인간이 사지에서 죽음을 극복하는 면으로 전경은 적고 있다.

상제께서 최익현(崔益鉉)이 순창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라사대 “일심의 힘이 크니라. 같은 탄알 밑에서 임낙안(林樂安)은 죽고 최면암(崔勉菴)은 살았느니라. 이것은 일심의 힘으로 인함이니라. 일심을 가진자는 한 손가락을 튕겨도 능히 만리 밖에 있는 군함을 물리치리라” 하셨도다.(교법 3장 20절)

<일심자를 서촉끝에서도 찾겠다>는 내용은 궁극적으로 인간 도통의 면을 포함하고 있는 뜻이다.

그래서 정성(精誠)의 근원이 일심(一心)임을 밝히고 혈식천추 도덕군자가

남조선 뱃길의 배를 타게되는 이유를 천추혈식의 정성으로 상제는 강조한 것이다. 결국 인간은 일심으로 만사(萬事)를 이루는데 <혈식천추 도덕군자>는 일생을 정성으로 살아온 존재로 도통군자가 될 수 있는 경지에 있는 인간으로 묘사된다.

상제께서 화천하시기 전해 설달 어느날 백지에 이십 사방위를 돌려 쓰고 복판에 혈식천추도덕군자(血食千秋道德君子)를 쓰시고 “천지가 간방(良方)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나 이십사(二十四)방위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졌느니라.”고 하시고 “이것이 남조선 뱃길이니라. 혈식 천추 도덕군자가 배를 몰고 전명숙(全明淑)이 도사공이 되니라. 그 군자신(君子神)이 천추 혈식하여 만인의 추앙을 받음은 모두 일심에 있나니라. 그러므로 일심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 배를 타지 못하리라.”고 이르셨도다.(예시 50절)

이러한 인간 일심(一心)에 대해 상제는 복록의 주재자로서 인간 복록이 일심에 따라 있게 됨을 보이고 있다.

인간의 복록은 내가 말았으나 맡겨 줄 곳이 없어 한이로다. 이는 일심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일심을 가진 자에게 지체없이 배풀어주리라.(교법 2장 4절)

이제 범사에 성공이 없음은 한 마음을 가진자가 없는 까닭이라. 한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한할 것이로다. 안 되리라는 생각을 품지말라.(교법 2장 5절)

궁극적으로 인간의 일심은 위 구절에서처럼 복록을 내려주는 상제에 대한 일심일 때 인간이 복록과 수명을 받게 되며 인간 완성의 도통도 이룰 수 있다.

이점은 요람에서 경천과 수도에 대해 설명된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삼요체는 사강령을 이루기 위한 바탕이 된다. 신조는 수행과 관련된 것으로 인간 심성과 실천의 면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 성은 마음의 상태와 연관돼 볼 수 있고 인간 일심과 밀접함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복록과 수명을 인간이 받아 누리는데 있어 필요한 심신의 자세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성(誠)과 신(信)의 관계를 <최풍헌과 류훈장>의 이야기에서 찾아보면, 그

내용은 믿음을 바탕으로한 인간의 부단(不斷)의 정성이 필요함을 나타낸 내용이다. 유언까지도 끝까지 믿고 장지(葬地)에 따라감으로써 화난(禍難)을 면한 류훈장의 최풍헌에 대한 일관된 마음은 믿음을 견지한 정성으로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하루는 종도들에게 지난 날의 일을 밝히시니라. “최풍헌(崔風憲)이라는 고흥 사람은 류훈장(柳訓長)의 하인인데 늘 술에 취해 있는 사람과 같이 그 언행이 거칠으나 일 처리에 남보다 뛰어난지라 훈장은 속으로 그 일꾼을 아꼈도다. 훈장은 왜군이 침입한다는 소문에 민심이 흉악해지는 터에 피난할 길을 그에게 부탁하였으되 풍헌은 수차 거절하다가 주인의 성의에 이기지 못하여 가산을 팔아서 나에게 맡길 수 있나이까고 물었느니라. 류훈장이 기꺼이 응락하고 가산을 팔아서 그에게 맡겼도다. 풍헌은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술을 마시며 방탕하여도 류훈장은 아예 모르는 체 하더니 하루는 최풍헌이 죽었다는 부고를 받고 뜻밖의 일로 크게 낙담하면서 풍헌의 집에 가서 보니 초상이난지라. 그는 하는 수 없이 그의 아들을 위로하고 혹 유언이나 없었더냐고 물으니 그 아들이 “류훈장에게 통지하여 그 가족들에게 복을 입혀 상여를 따라서 나를 智異山 아무 곳에 장사하게 하라”고 전하니라. 이 유언을 듣고 류훈장은 풍헌을 크게 믿었던 터이므로 집에 돌아와서 가족에게 의노하다만 큰 아들만이 아버지의 말씀을 좇는도다. 사흘이 지나 모두들 운상하여 지리산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산상에서 상여를 버리고 이곳으로 빨리 오르라는 소리가 들리는지라. 모두 그 쪽을 바라보니 최풍헌이라. 모두들 반겨 좇아 올라가니 그 곳의 집 한 채에 풍부한 식량이 마련되어 있느니라. 다시 최풍헌을 따라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가 가리키는 대로 내려다 보니 사방이 불바다를 이루고 있는지라. 그 까닭을 물으니 그는 왜병이 침입하여 마을마다 불을 지른 것이라” 이르도다.(교법 3장 17절)

<<전경>>에 언급된 <십년 머슴>의 이야기는 성의(誠意)로써 도통(道通)인 선술(仙術)을 얻은 것이다.

보라 선술을 얻고자 십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그의 성의로 하늘에 올림을 받은 머슴을. 그는 선술을 배우고자 스승을 찾았으되 그 스승은 선술을 가르치기 전에 너의 성의를 보이라고 요구하니라. 그 머슴이 십년 동안의 盡心竭力을 다한 농사 끝에야 스승은 머슴을 연못가에 데리고 가서 “물위에 뻗은 버드나무 가지에 올라가서 물위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선술에 통하리라”고 알려주었도다. 머슴은 믿고 나뭇가지에 올라 뛰어내리니 뜻밖에도 오색 구름이 모이고 선악이 울리면서 찬란한 보연이 머슴을 태우고 천상으로 올라가니라.(예시 83절)

상 중 하 도통의 차이는 이십일(二十一日)간의 공부를 통해 나누어 지는데 이러한 도통의 차등은 인간 성심의 정도에 따르는 것이다.

공우가 어느날 상제를 찾아 뵈옵고 도통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니라. 상제께서 이 청을 꾸짖고 가라사대 “각 姓의 선령신이 한 명씩 천상 공정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이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베풀면 모든 선령신들이 모여 편벽됨을 힐난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볼 수 없도다. 도통은 이후 가기 닦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 하셨도다. (교운 1장 33절)

또 상제께서 말씀을 계속하시기를 “孔子는七十二명만 통예시켰고 석가는五백명을 통케 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주리니 상재는七일이요, 중재는十四일이요, 하재는二十一일이면 각기 성도하리니 상등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 하셨도다. (교운 1장 34절)

또한 도통은 수도의 궁극적인 완성으로서 금강산 일만이천봉을 응기해 일만이천의 도통군자로 창성을 이루는 것인데 상중하의 차이는 도창 태인 대각이라는 수행의 경지로 차등된다.

이것은 공부를 통한 정신적 경지인 각과 인에서 실천적 정성인 도의 창성을 위해 노력하는 인간 정성의 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상제께서 태인 도창현에 있는 우물을 가리켜 “이것이 젓(乳) 샘이라.”고 하시고 “도는 장차 금강산 일만 이천의 도통군자로 창성하리라. 그러나 후천의 도통군자에는 여자가 많으리라.” 하시고 “상유도창 중유태인 하유대각(上有道昌 中有泰仁 下有大覺)” 이라고 말씀하셨도다. (예시 45절)

한편 도통의 경지는 인간의 정성어린 공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공부는 무한한 공력으로 열리는 차원임을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공우에게 “천지의 조화로 풍우를 일으키려면 무한한 공력이 드니 모든 일에 공부하지 않고 아는 법은 없느니라. 鄭北窓 같은 재주로도 입산 삼일 후에야 천하사를 알았다 하느니라”고 이르셨도다. (교운 1장 35절)

한편 인간 공부의 정성은 신이 응하는 것이고 우주의 공정인 천지공사도 이러한 인간 공부의 과정을 따라야 되는 면을 찾을 수 있다.

상제께서 하루는 종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안지방 신명을 불러도 응하지 않으므로 사정을 알고자 부득히 그 지방에 가서 보니 원일이 공부할 때에 그 地方神들이 호위하여 떠나지 못하였던 까닭이니라. 이런 일을 볼진대 공부함을 어찌 등한히 하겠느냐” 하셨도다.

공부에 있어 위와같은 개개의 인간적 차원의 공부와 함께 도주의 50년간의 공부는 상제의 종통을 이어 받아 천지공사의 도수를 풀어 도통진경을 이루는 천지성업으로서 우주적 차원의 무한한 정성과 공력의 의미를 담고 있다. 도주의 포교 50년 공부에서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 보기로 한다.

“모든 일을 있는 말로 만들면 아무리 천지가 부수려고 할지라도 부수지 못할 것이고 없는 말로 꾸미면 부서질 때 여지가 없나니라”고 말씀하셨도다.(교운 1장 36절)

인간이 정성을 들여 단계적으로 이르는 차원이 <<대학>>에서 뜻을 정성스럽게 한다는 성의(誠意)로부터 평천하(平天下)까지 라면 <<전경>>에서는 평천하에 위천하의 단계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위천하의 예를 <<爲天下者는 不顧家事라 하였으되 諸葛亮은 有桑八百株와 薄田 十五頃의 밭으로 성공하지 못하였느니라>>(교법 2장 52절)고 하여, 재갈량이 뜻을 못이룬 것을 일심으로 천하사에 매진하지 못하고 촌락에 돌아간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정성의 궁극이 <위천하자 불고가사(爲天下者 不顧家事)>로 이르러야 됨을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전경>>에 인용된 <<대학>>의 전(傳)의 내용은 한 신하로서 가져야될 자세에 있어 정성과 포용성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또 大學의 다른 章을 외워주시며 잘 기억하여 두라고 이르셨는데 글귀는 이러하도다.

如有一介臣斷斷의 無他技 其心休休焉 其如有容 人之有技 若己有之 人之彥聖 其心好之 不시약其口出 寔能容之 以保我子孫黎民 尙亦有利哉 人之有技 위疾以惡之 人之彥聖 而違之 比不通 是不能保我子孫黎民 亦曰殆哉 (교운 1장 57절)

위의 내용은 진서(秦誓)에 나온 내용을 대학에 재인용한 것으로 그 내용을 해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만약에 다른 신하가 단단하고 다른 기예가 없으나 그 마음이 곱고 고와 용납함이 있는 듯하여 남이 가지고 있는 기예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며 남의 훌륭함과 성스러움을 그 마음에 좋아함이 자기 입에서 나온 것 보다 더 한다면 이는 능히 남을 포용하는 것이어서 나의 자손과 백성을 보존할 것이니 거의 이로움이 있을 것이다. 남이 가지고 있는 기예를 시기하고 미워하며 남의 훌륭함과 성스러움을 어겨서 통하지 못하게 하면 이는 능히 포용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나의 자손과 백성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니 역시 말하기를 위태롭다하리라.>>(<<대학>>)

<<대학>>의 다른 장의 내용속에 들어 있는 단단(斷斷)은 주자(朱子)의 주(註)에 정성스러우며 한결같은 모습의 뜻인 성일지모(誠一之貌)로 풀이되어 있다. 이것은 신하의 직분으로서의 인간의 정성스럽고 일심인 상태를 강조한 내용인데 상제가 이 구절을 대학에서 인용해 자신을 따르는 종도들에게 언급한 것은 인간에게 성(誠)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에서는 성의(誠意)에 대한 설명을 전(傳)에서 밝히고 있다.

<<대학>>에서 성의에 대한 설명은 <뜻을 성실히 한다는 것은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이다(誠其意者 毋自欺也)> 라고 강조한 후 <홀로 있을 때 삼가한다>는 <신독(愼獨)>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은 뜻을 성실히 하는 것이 선과 악의 구분을 확실히 해 속임이 없이 진실하게 선을 자기 내면에 간직해가는 것으로 풀이 된다.

또한 증자(曾子)가 말한 <열 개의 눈이 보는 바이며 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바이니 그 무섭도다(十目所視 十手所指 其嚴乎)>의 뜻은 <<전경>>에서 신의 인간에 대한 살핍인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천지의 귀신이 수찰한다(大大細細 天地 鬼神垂察)>는 내용과 통하는 뜻이며, <마음 닦기에 있어 선과 악의 신(神)을 잘 구분하라>는 상제의 가르침은 성의(誠意)의 의미가 인간 마음에 작용한다는 좀더 근원적이고 구체적인 면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IV. 結語

이 글은 삼요체(三要諦)에 속하는 정성의 의미를 천지 성경신과 복록수명 성경신이라는 구절에 입각해, 중용에 나타나는 성(誠)에 대한 내용과의 연관 성속에서 고찰한 것이다. 이제 정성에 대해 일관된 논리의 결론보다는 본문에서 편편히 정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한편 천지 성경신(天地 誠敬信)은 우주를 운행시키는 신적 존재와 연관지어 설명되었으며, 이 신적 존재는 복록수명 성경신(福祿壽命 誠敬信)에서 인간의 성경신에 따라 복록과 수명이 결정된다는 측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의 인간에 대한 평가는 인간의 성심에 따라 작용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인간에게 있어서는 도통과 운수라는 점을 생각할 때 고견원려(高見遠慮)에 따라 지혜를 간직한 경지가 중요한 의미로 대두된다.

신인(神人) 즉 상제는 우주적 원리를 통제해 천지를 개벽하여 궁극의 이상세계를 열어주는 존재이다. 인간의 정성은 상제에 대한 일심을 통해 복록수명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인간 복록과 수명은 시천주의 일부 주문과 관련되어 상제에게 귀일하는 고리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일심에 대한 보답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수운 최제우의 천명과 신교도 상제에 의해 계시로서 내려진 수운의 반봉건 구제 창생의 일심에 대한 상제의 명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수운이 받은 일종의 복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서전>> 서문에서 강조된 내용은 <<중용>> <<대학>>과 이어지고 주자의 집주와 관련되어 좀더 유기적인 의미로서의 <정일집중(精一執中)> <건중건극(建中建極)>의 해석이 가능해진다.

무엇보다도 <<중용>>에 나타나는 성(誠)에 대한 풀이는 절대적 차원으로서의 정성에대한 인간 노력의 부단한 경주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용에서의 <성자 천도(誠者 天道)>와 대순사상에서의 <<천지 성경신(天地 誠敬信)>>과의 유기적 관련성과 좀더 확장된 전 우주적 총체성속에서 천지공사로 열려지는 새세계에 대한 면모를 내포한 것이다.

【참고문헌】

<<大學 中庸>>서울: 보경문화사

<<書傳>>서울: 보경문화사

高南植(1999), <有道の 확립과 안의 意味>, <<大巡思想論叢>>(제7집), 大巡
思想學術院

金吉換,(1994), <<東洋倫理思想>>, 서울: 一志社

金鐸(1995), <<甌山 姜一淳의 公事思想 >>, 경기 성남: 韓國精神文化研究
院 博士論文

大巡眞理會 敎務部(1969),<< 大巡眞理會 要覽 >>,서울: 大巡眞理會 出版部

大巡眞理會 敎務部(1974), <<典經>>, 서울: 大巡眞理會 出版部

大巡眞理會 敎務部(1969), <<大巡指針>>, 서울: 大巡眞理會 出版部

都珖淳(1981), <李栗谷의 誠思想>, <<韓國學報>> 22집, 서울, 一志社

黎靖德(1987), <<朱子語類>>, 臺北: 文津出版社